

소비자보호 · 분쟁

카드결제 가능상품 40.5%, 생명보험료 카드납부는 4.1%다

공시는 선택지를 보여 주지만 카드로 낼 권리까지 만들지는 않는다

보험연구원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2025년 상반기 공시를 같은 정의로 재집계한 자료와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대조해, 비교공시와 실제 납부권리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발행
2026.08.21

연번
2026_45

읽는 시간
6분

작성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연구소의 판단

연구소는 보험료 카드납부 공시가 회사별 차이를 비교하게 했지만 계약자가 카드로 계속 낼 권리까지 만들지는 않았다고 본다. 다음 과제는 가능한 상품 수를 늘려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입하려는 계약의 허용 카드사와 초회·계속보험료 가능 여부를 같은 화면에서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확정된 사실

2025년 상반기 산업합계에서 보험료 기준 카드납부 비율은 생명보험 4.1%, 손해보험 29.9%였습니다. 상품 수 기준 지표와 실제 납부액 기준 지표는 분모가 다릅니다.

항목	확인된 내용	비고
생명보험 카드납부	4.1%	보험료 기준
손해보험 카드납부	29.9%	보험료 기준
생명보험 가능상품	40.5%	판매상품 수 기준
손해보험 가능상품	88.7%	판매상품 수 기준
계약 건수 기준	생보 9.2%·손보 18.2%	2025년 상반기
계속보험료 지수	생보 -4.5%p·손보 0.8%p	정의와 부호를 함께 확인

카드결제 가능상품 지수는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품 수를 판매상품 수로 나눈 값입니다. 보험료 기준 지표는 카드로 결제한 수입보험료를 전체 수입보험료로 나눕니다. 상품 몇 개가 가능하다는 사실과 보험료가 실제로 얼마나 결제됐는지는 같은 값이 아닙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이미 신용카드가맹점인 사업자가 카드거래라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게 합니다. 모든 보험상품이 모든 카드사와 가맹계약을 맺도록 강제하는 일반 조항은 아닙니다.

왜 이런 구조인가

보험료 납부에는 계약자·보험회사·카드회사가 들어갑니다. 카드회사는 결제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회원에게 청구하며 보험회사는 가맹점수수료를 부담합니다. 자동이체는 이 신용공여와 가맹점수수료가 없는 별도 경로입니다.

초회보험료 한 번의 승인과 수년간 계속보험료를 받는 일은 다릅니다. 카드 유효기간 종료·재발급·한도 부족으로 승인이 실패하면 약관상 납입최고·독촉과 실효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행 공시는 납입 가능한 카드사, 보험료·계약건수·가능상품 지수와 초회·계속보험료 차이를 나누어 보여 줍니다. 그러나 가입 화면에서 특정 상품과 특정 카드사의 계속 납부 가능 여부를 한 번에 확인하는 공통 형식은 아닙니다.

공시는 차이를 드러내지만 카드가맹계약 체결을 명령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정보와 실제 납부권리 사이에 규율의 간격이 남습니다.

누가 얼마나 물리는가

손해보험의 보험료 기준 카드납부 비율은 생명보험보다 25.8%포인트 높고 약 7.3배입니다. 업권 산업합계이므로 개인이 가진 계약의 허용 여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생명보험에서 가능상품 40.5%와 실제 보험료 4.1%의 차이는 36.4%포인트입니다. 두 값의 분모가 달라 이 차이를 미사용률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월 보험료 20만원, 카드 혜택 1%를 단순 가정하면 1년 명목 혜택은 2만4천원입니다. 연회비·월 한도·전월실적과 보험료의 실적 인정 여부는 넣지 않은 예시입니다.

더 큰 위험은 결제 실패 뒤 미납을 놓치는 일입니다. 카드 변경 때 계속보험료 승인이 이어지는지와 다음 납입일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업권 격차	25.8%p	29.9%-4.1%
비율	약 7.3배	29.9÷4.1
연간 명목 혜택	2만4천원	월 20만원·1% 가정

무엇이 해결되지 않았나

01 가입 전 표시 단위 회사 합계 지수는 상품·카드사·초회·계속보험료의 허용 여부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02 중단 때의 통지 계속보험료 카드납부가 중단될 때 사전통지 기간과 대체수단을 표준화한 공개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03 수수료와 보험료 카드납부 확대 비용이 보험료에 얼마나 반영되는지는 업권 공시만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4 최신 산업합계 동일 정의로 비교한 수치는 2025년 상반기입니다. 2026년 상반기 자료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할 일

국민

- 가입 전 협회 공시와 보험회사에서 허용 카드사와 계속보험료 납부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합니다.
 - 카드 변경 뒤 납입상태와 다음 납입일을 확인하고 혜택 조건은 카드 약관에서 따로 봅니다.
 - 미납 안내를 받으면 승인 여부와 대체 납부수단, 약관상 실효 절차를 확인합니다.
-

대상회사

- 상품별 허용 카드사와 초회·계속보험료 가능 여부, 변경 적용일을 한 화면에 표시합니다.
 - 승인 실패와 납부수단 중단을 구분해 알리고 대체수단 등록까지 기록합니다.
-

당국

- 가능상품 지수와 실제 보험료 지수의 분모 차이를 설명하는 표준 공시를 마련합니다.
 - 계속보험료 카드납부 중단 때 통지와 대체수단 안내 기준을 점검합니다.
-
-

· 상품·카드사·초회·계속보험료를 한 화면에서 보여 주는 공통 형식과 변경통지 기준이 없습니다.

A

회사·업권 합계 유지

B

상품·계약 화면 표준화

· 생명·손해보험협회의 2026년 상반기 운영현황과 금융감독원 비교공시 기준의 상품 단위 항목을 확인합니다.

함께 읽을 것

4개의 연결 지식

금융상품 신용카드

금융상품 저축보험

금융상품 생명보험 암보험

피해구제 자료열람요구권

확인한 사실·숫자 8건

8 확인 항목	5 1차 자료	1 파생 계산	6개월 뒤 추적 예정
------------	------------	------------	----------------

1차 발표기관 공식 자료 ·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법령 파생 1차 자료의 수치를 이용한 계산

01	2차	2025년 상반기 생명·손해보험 카드납 지수와 정의 보험연구원, 보험소비자보호 평가와 공시 개선과제, 2025년 11월	원문 열기 ↗
02	1차	손해보험 보험료 신용카드 납입현황과 지수 공시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원문 열기 ↗
03	1차	손해보험 소비자정보통합공시 안내 손해보험협회 소비자포털	원문 열기 ↗
04	1차	생명보험협회 기타공시의 카드결제·가능상품·계속보험료 지수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이란 무엇인가 2024	원문 열기 ↗
05	1차	가맹점의 결제거절·불리한 대우 금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원문 열기 ↗
06	1차	카드가맹점 차별금지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 2012년 결정	원문 열기 ↗

추적 예정

2026년 상반기 생명·손해보험협회 카드납 지수와 회사별 분포, 상품 단위 허용 카드사·계속보험료·변경통지 공시 신설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정 이력

정정 없음. 보험료·계약건수·상품 수 기준의 분모를 구분하고 2025년 상반기 산업합계로 기간을 한정했습니다.

면책 고지

이 글은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분석이며 특정 보험 또는 카드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실제 납부 가능 여부와 보장 유지 절차는 계약·약관·카드사에 따라 달라지며 법률·채무 자문이 아닙니다.

작성

네็กซ์스 금융경영연구소